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사람 좋은세상

창의와 혁신으로 만들어 가는 글로벌경쟁력



머릿글 前 러시아 대사 정태익

9·10월프로그램

Issue&Seminar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청승

발행인편지

CoverStory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기획특집-제27회 제주 CEO 섬머포럼 지상중계

명사초청특강 前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회원&연구원소식

정일목칼럼

표지인물 손경식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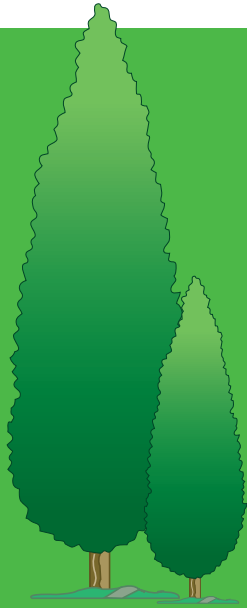
통권 제95호 [비매품] 등록번호 : 서울 마 03200 발행일 : 2009년 9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편집: 정용달 T.070-7500-9500(대) F.2203-1974 디자인 페가수스(www.pegasus.or.kr)
주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www.khdi.or.kr (주)광진문화

2009 9·10

■매월 4일은 가스시설 자율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 우리가족 행복점검

SCG
GROUP

품질 / 환경 / 안전보건 통합경영체제 인증업체
(ISO 9001) (ISO 14001) (KGS/OHSAS 18001)



서울도시가스그룹이
따뜻한 세상,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





코리아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정태익 법무법인 율촌 고문 / 前 러시아 대사

한 국은 지난 40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통합코리아의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중유의 세계적인 경제 한파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계획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코리아는 지난 2천년간 역사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세기는 글로벌 통합의 시대이자 새로운 발상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생존과 번영전략을 짜기 위해 우리의 역사가 심어준 코리아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코리아는 19세기까지 중국 중심의 대륙패권체제의 일원이었으나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한 분단 등을 겪으면서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어 인위적 섬에 갇혀 살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의 격차가 점점 좁아져 한반도는 점차로 미·중간 전략적 경쟁장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지난 2천년간 역사 전환 과정에서 코리아는 중화문명, 일본문화, 구미문명을 받아들여 세계 보편문명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셋째, 코리아는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서 흥익정신에 기초한 평화전파가 코리아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에 비추어 코리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세계문명과 조화를 통해 세계 보편문화를 창달하며 평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변국가의 부침에 따라 4두마차의 피해국가가 되었던 쓰라린 역사를 청산하고 동북아 지역의 마부국가가 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한·미간의 공고한 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강력한 통합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나아가 체제와 가치를 달리하는 중국과 협력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와 지정학적, 지정학적 연계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도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공생국가를 만들어 21세기 프런티어인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의 '코리아선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러공생국가의 실현은 우리에게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새로운 조

건에서 세계를 향해 응비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2005년 수린 박사의 코리아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9월 러시아 방문 시 제시한 철, 에너지, 녹색 3대 실크로드 건설 구상으로 추동력을 받게 되었다.

공생적 차원에서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계획이 세계적 차원의 획기적 베링해협터널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된다면 시베리아와 캄차카지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견인지역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방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한일터널의 건설계획은 '통합 코리아' 실현의 기반을 다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은 1백년 전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었고, 태평양전쟁의 대참패로 팽창이테올로기도 약화되었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도 1백년 전과는 다르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일터널 문제에 대해 과거 보다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TKR/TSR 연결, TKR/TCR 연결, 한일해저터널과 베링해협터널 건설 프로젝트는 '한반도 Y루트'의 구축 내용물이다. 주변 패권세력의 원심력 작용으로 희생물이었던 한반도가 주변 4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희망프로젝트인 '한반도 Y루트' 구축이야말로 코리아의 미래 비전이다.

하드웨어와 더불어 사회의 성숙화, 법치주의, 녹색혁명, 창의적 외교, 양극화 해소, 창발적 교육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성공한다면, 한국은 명실 공히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국이 포함된 5강 체제라는 신질서의 형성은 아시아시대를 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것이다. **▶▶▶**



정태익 고문

1943년 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무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駐이집트 대사, 駐이탈리아 대사, 駐러시아 대사를 지냈으며,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등의 요직을 거쳤다. 현재 유라시아포럼 대표,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9월

나로호 발사와 우주항공 분야 한국의 비전

제1611회 9월 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일곱 번의 발사 연기라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발사됐지만 결국 과학기술위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로호 발사는 실패했지만 얻은 성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진은 나로호 발사를 준비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축적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원격 발사체 추적시스템은 세계를 놀라게 만든 우리의 기술이다. 우주강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나 러시아도 레이더를 사용해 발사체의 궤적만 추적할 뿐 우리처럼 무선통신을 활용해 발사체의 속도, 위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했다.

앞으로 우주개발을 전략적인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가 차원의 꾸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진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2018년 완전한 우리 기술로 제작한 나로 2호가 발사될 때까지 지속적인 발사 시험을 거듭하며 기술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우주강국들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주개발을 지원할 행정기구 설립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최규홍 교수를 초빙하여 미완의 꿈으로 산화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실패 원인과 함께 우주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웰빙과 로하스를 넘어 힐빙(healbeing) 문화시대로

제1612회 9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방식만을 추구하는 풍조 속에서 화학물질을 오남용하는 등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비만과 아토피성 질환 증가, 청소년 정신질환자의 급증, 그리고 노인들의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고도정보사회의 뒤안길에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통합 치유방안을 절실히 손짓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 사회의 질병 현상을 체계적이고 본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개발된 '힐텍(Healing Science and Technology; HT)'은 인간과 자연의 오염문제를 함께 치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자연과 인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치유하다'는 의미의 '힐'과 '테크놀로지'를 뜻하는 '텍'이 결합된 '힐텍'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다학문적인 의제임을 알 수 있다.

중앙대 힐텍힐빙문화연구소는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생존해 오면서 인류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갈고 다듬어 온 공동체적 삶의 원리인 우리 전통의 상생문화 정신을 확장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힐텍힐빙문화연구소의 박헌렬 소장을 초빙하여 웰빙과 로하스를 넘어 힐빙문화(Healbeing Culture)로 우리를 자연의 삶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규홍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서울대 천문기상학과 졸업 | 美 펜실베이니아대 천체물리학 박사 | 연세대 천문대기학과 과 학과장, 천문대 대장, 청소년 과학기술진흥단 단장 차 | 한국천문학회 회장 | 한국우주과학회 회장 | (사)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부회장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세부실천계획 위성이용분야 위원장 | 과학기술부 '제2회 과학기술예측' 항공 우주 천문 분과위원장, 우주센터 추진위원회 위원 |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실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단 단장

<상훈> 한국우주과학회 공로상, 대한민국 국민포장 차

<저서> 천체역학, 인공위성과 우주



박헌렬

중앙대 힐빙힐텍문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 프랑스 파리6대학교 공학 박사 |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교수, 기술과학연구소 소장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화학공학회 총무이사 | 한국자원재생공사 기술자문위원 | 서울 그린트러스트 자문위원 | 수필가, 이음새 에세이 문학회 회원 | 힐텍포럼 대표 | 환경관리공단 환경평가 심의위원 | 한국문화원연합회부설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부산대 음악학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빈 시립 콘서바토리 성악과 석사(전과정 최우수 졸업), 최고연주자과정 오페라과 졸업 |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음악원 성악과 박사과정 수료, 지휘과 석사과정 중 | 경주 서라벌대학교 교수 | 서울종합예술원 성악과 교수, 교학처장 |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바이러스' 예술감독 | 한국공연예술교육원 관현악과 교수 | 음악교육, 디자인, 컨설팅회사 '뮤자인' 대표

〈저서〉 서희태의 클래식 토크 '베토벤 바이러스'

클래식과 창조경영

제1613회 9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지난해 한국 최초의 클래식 전문드라마로 '강마에'란 인물을 탄생시키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베토벤 바이러스'가 종영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강마에란 인물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며, 이 드라마의 음악감독을 담당했던 서희태 지휘자의 인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김연아 선수가 출연하는 아이스쇼에 한국 최초로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클래식은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세월의 무게를 견디어 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창조물이다. 음악이란 무에서 오선지 위에 옮겨지면서 창조되어지는 예술이다. 서희태 감독은 이런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으며, 기업의 CEO라면 음악의 3요소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하모니, 멜로디, 리듬이다. 음악의 3요소와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이 어떻게 절묘하게 어우러지는지 이번 연구를 통하여 클래식 음악에서 우리는 리더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베토벤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시작된 서희태 감독의 음악인생과 더불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음악디자인 등 지휘자로서 클래식과 리더십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 한식문화의 세계화

제1614회 9월 24일(목)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지난 4월 정부는 한식세계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한식의 위상을 높여 중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요리처럼 세계인의 식단에 올리자는 것이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음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맞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한식을 먹지만 우리 음식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다.

자국 음식의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은 서구의 음식을 일본화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지었다. '돈까스'가 대표적이다. '스시'에는 최고급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비싼 값에 소비하게 만들어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최고급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한국 음식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조태권 광주요 회장님은 우리 음식의 세계화가 더딘 것은 지도층들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말한다. 조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도자기 기업 '광주요'를 물려받은 1988년 이후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자기에 어울리는 음식을 내놓을 식당 사업, 식당 분위기도 한국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민회를 소재로 한 벽지 개발, 우리 음식에 어울리는 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든 증류식 소주 '화요' 개발 등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조태권 회장을 초빙하여 한식문화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계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美 미주리주립대 공업경영학과 졸업 | 日 도쿄 마루이치상사 근무 | (주) 대우 근무 | (주) 광주요 대표이사 |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이사 | (주)화요 대표이사 |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 제1세션 발표

〈논문〉 한국 식문화 세계화 전략연구서, 한국 식문화 세계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10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세계속의 우리나라 녹색성장과 지식재산 전략

제1616회 10월 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정부의 그린(Green)정책이 가속도를 내면서 곳곳에서 '녹색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지식관리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해 2012년까지 세계일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6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안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도 및 신속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들은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 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술개발에만 매진해서는 안 된다. 기술개발은 기본이고 특허 제후나 특허 선점 등의 활동을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제품생산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고정식 특허청장을 초빙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녹색성장의 현주소와 함께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정식 특허청 청장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석사 | 美 미시간대 응용경제학 석사, 공학 박사 | 동력자원부 사무관, 에너지지도과장 | UN ESCAP 아태지역 에너지정책자문관 | 駐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상무참사관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협력과장, 에너지관리과장, 자원정책과장, 전기위원회사무국장, 생활산업국장, 에너지산업심의관, 자원정책심의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KT의 새로운 도전과 4G를 통한 신시장 개척

제1616회 10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진행되던 지난 7월 중순, 스웨덴 방문 일정 중에 이석채 KT 회장과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최고경영자(CEO)의 만남에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와 한국 최대의 통신업체 CEO가 만난 이 자리에서 4세대(4G)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무선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기 때문이다.

KT는 이른바 '올레(Olleh)경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 초 KT 수장으로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 회장은 통합 KT의 새로운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 과거 100년 역사를 써온 KT가 미래 10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기 위해서 올레경영을 제2의 창업으로 선언하였다.

올레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영어 'Hello'를 거꾸로 쓴 것으로 역발상 경영을 강조한다. 또 미래가 온다는 '올래'는 새로운 미래가치 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며, 제주도 방언으로 좋은 길이라는 의미의 올레를 통해서 고객과의 소통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환호와 탄성을 나타내는 감탄사 올레는 고객과 협력사들이 KT와 만날 때 감동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에서 KT호의 선장으로 돌아온 이석채 회장을 초빙하여 KT의 새로운 도전과 유무선 경계가 없는 꿈의 융합 서비스 4G를 통한 신시장 개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석채 KT 회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美 보스턴대 정치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 제7회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 재정경제원 차관 | 정보통신부 장관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美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NTT 조빙교수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 BT(British Telecom) 고문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

<상훈> 홍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를 말하다

제1617회 10월 1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경쟁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논쟁이 뜨겁다. 대한민국을 반세기 동안 지배해 온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대결과 분열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깊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오늘의 한국을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자 정보선진국으로 만든 주역들이다. 서양에서 300~400년이 걸린 산업화를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불과 반세기만에 달성한 것이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최초로 좌경중도 정권 10년을 경험했다. 보수정권 50년에 비해 10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영향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부 기자로 시작해 문화일보 사장을 역임한 남시욱 광화문화포럼 회장이 2005년 <한국 보수세력 연구>라는 책에 이어 얼마 전 <한국 진보세력 연구>를 펴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진보세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공과 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통 언론인 출신인 남시욱 회장을 초빙하여 한국의 보수와 진보, 그들의 뿌리와 사상, 이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남시욱 광화문화포럼 회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석사 | 동아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상무 | 한국언론회관 이사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고문 | 삼성언론재단 이사 | 문화일보 사장 |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회장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석좌교수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

<상훈> 제4회 위암 장지연상, 제8회 중앙언론문화상, 제51회 서울시문화상 외

<저서> 체험적 기사론, 한국 보수세력 연구, 한국 진보세력 연구 외

글로벌시대 속에서 한국의 선택

제1618회 10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점차 통합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살아가고 있다. 과거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만 목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전개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모든 과정들에서 목격되는 글로벌적인 변화이다. 또한 이 변화는 그 속도에 있어서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화는 경쟁의 격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구조의 극단적인 다운사이징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경제적 글로벌화는 고통스러운 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글로벌화 역시 이익과 비용을 함께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경제 기적에 따른 풍부한 물질적 재화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추정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법을 따르고 정직하고 품위있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색깔의 문화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미국 하워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광승영 교수를 초빙하여 글로벌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선진화된 미래의 한국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광승영 美 하워드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UC버클리대 경제학 박사 | 부흥부(경제기획원 전신) 기획국 근무 | 미국 브루킹 연구소 근무 | 미국 재무부 해외경제정책국 부국장 | 미국 중앙은행 근무 | 1983년부터 하워드대 교수로 재직

나는 왜 성공일기를 쓰는가

제1619회 10월 29일(목)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빛을 주고 꿈을 준다. 꿈과 목표를 정하고 함께 성공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리더들이 많아 진다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같은 일이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면 더욱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과정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난관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보낼 수도 있다.

'성공선언 2017'이라는 제목으로 성공일기를 쓰기 시작한 김정호 원장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성공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성공에너지로 충만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런 국민들은 자유시장경제의 지지자일 수밖에 없고,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역시 자유주의자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차차기 대통령 선거에 그런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017년을 목표 년도로 잡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을 초빙하여 성공에너지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들어보고, 그가 생각하는 자유와 도전, 그리고 성공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석사과정 수료 | 美 일리노이대(UIC) 경제학 박사 | 숭실대 법학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유기업원 부원장 겸 법경제실장 | 지식경제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저서>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갈등하는 본능(공저), 시장현상과 대중경제지식(공저) 외



제160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7월 2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세종대왕, 그리고 르네상스

이청승 세종문화회관 사장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부지런함도 있었지만 그 근간에 한글이라는 우리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유전자자 비슷한 몽골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지금은 내륙의 오지에서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서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글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어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할 수 없고, 지식을 확대, 생산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르네상스

르네상스 하면 이탈리아를 연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르네상스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세종대왕은 동시대에 활약했다. 세계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르네상스'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세종문화회관이라는 하드웨어를 경영하면서 세종대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찾아낸 화두가 '세종르네상스' 였는데, 세종문화회관이 단순히 대한민국 문화 1번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김주성 전임 사장을 만나 그가 하고자 했던 일, 하다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다. 그렇게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학창 시절 새 학기가 시작되면 쓰던 노트는 버리고 언제나 새 노트를 사곤 했다. 그러나 새 노트를 쓴다고 성적이 좋게 나올 리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강왕 카네기가 쓴 글을 읽었는데, "무슨 일이든 남이 시작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이였다.

당시에는 M&A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남이 하다 만 것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우선 싸게 손에 넣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잘한 것은 계승하고 못한 것은 개선하면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관광객 1200만 시대 충분히 가능

성공의 비결은 가까이 있을 때가 많다. 이는 관광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에 방문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즉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 관광청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을 둘러보고 "한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관광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광활한 국토를 가졌지만 제한된 시간에 모두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한 마디로 그림 속의 팔등신 미녀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3박4일 정도면 어느 정도 돌아볼 수 있다.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작지만 귀여운 소녀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거리가 멀면 상당한 경비와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에서는 2시간 거리에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관광객으로 일본과 중국이 있다. 이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오고, 장차 오게 할 것인가에 한국관광의 미래가 달려 있다.

관광은 볼 관(觀)과 빛 광(光)으로 구성된 글자로 '빛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만나는 행위이다. 역사와 문화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궁극

적으로는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서양사람들과는 동질감보다는 이해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동양권에서는 서로 다르면서 같은 점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특히 역사를 같이 해왔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문화'이다.

나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시대가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 숫자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670만인데, 그들이 한 번만 더 오면 된다. 일본에 가면 사실 경관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은 깨끗함, 친절함, 상쾌함, 편리함 등과 관련이 있다. 우리도 외국인들이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한국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키워나가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은 난타 공연이 좋은 예다. 똑같은 난타 공연을 6회나 봤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주방에서 두드리던 컨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배경으로 버전이 진화했다.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 향상을 위한 노력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맡고 나서 세종문화회관 규정집을 꼼꼼하게 챙겨본 것도 그 때문이다. 규정집에서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권'이라는 본질을 발견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어떻게 내용에 충실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처음 부임하고 보니 이태리 대리석 위에 붉은 치장이 덮여 있었다. 예전의 최고경영자 한 분이 중국의 어느 호텔을 보고 와서 지시해 리모델링 한 것이라는데, 중국 냄새가 났고 한동안 '세종반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공사업체를 찾아 일주일만에 원상복



구시켰다. 껌테기의 옷을 벗기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임 당시만 해도 노조가 상당히 치열했었는데, 그들에게 ‘공연권’을 주면서 ‘손에 손잡고’라는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게 했다. 예술단을 하나로 규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노조가 사용자가 되어 사용자의 마음을 알고 뜻을 나누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작년에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건국 60주년 60일 기념공연’을 국무총리실과 진행했다. 사실 일주일만에 준비하고 시작한 기획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의 열정과 힘이 중요하다. 다들 잘하려고 망설이다가 생각으로만 그치거나 망치는 경우가 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젓 먹던 힘까지 다 할 정도로 몸부림치면 내가 가진 힘 이상의 힘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직원들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공연을 진행했다.

그렇게 노사가 손을 잡고, 열정을 다해 일하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향상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많은 관람객들이 주차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주차장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세종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신 기존 주차장은 문화공연 카페로 바꾸고, 두 공간 사이에는 복도식 갤러리를 만들 것이다. 새로운 명소로 탄생한 광화문광장 개장에 맞춰서 야외 카페도 등장할 예정이다.

정동극장,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난타공연장, KT아트홀, 금호아트홀 등 광화문 일대의 30여개 문화공간과 연계한 ‘세종벨트’도 구축했다. 아직은 한 장의 악도를 그렸을 뿐이지만 공연티켓 공동마케팅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한국의 브로드웨이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동시에 세워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곳에 세종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남산국악당은 앞으로 300명 수용 규모로 늘리게 되면 멋지고 쾌적한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체에게도 대관을 할 생각이다. 다만 대관 조건으로 30분간 국악공연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악인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야 국악의 생활화, 생활의 국악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전술과 정책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제 는 여기에 새로운 영감이나 느낌을 포장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돕고, 문화예술 후원자인 ‘한국판 메디치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종르네상스 최고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순수하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학습만 하고 기부금이나 회비를 걷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는 세종정신을 시대정신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32년 재위 기간 동안 무려 40차례의 병치레를 했다. 어떤 때는 너무 아파 새벽에 잠을 깨는 바람에 일어나 걷기도 했고, 어떤 날은 대신들이 임금의 장례식 준비를 할 정도로 많은 병치레를 했다.

그런 와중에도 세종은 백성들의 아픔을 먼저 챙겼다.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의 출산휴가를 줬고, 나아가 임신기간이 더 중요하다며 30일의 임신휴가를 줘서 총 130일의 휴가를 줬다. 더욱 놀라운 것은 4년 후에는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휴가 30일을 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단순히 노비가 불쌍해서 출산휴가를 줄 수도 있지만 임신 중에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휴가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지극정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 번은 해남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사건이 일어나자 신하들은 죄인을 당장 처형해야한다고 흥분했다. 하지만 세종은 나라가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삼강행실도> 간행을 지시했다. 이 책은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넣은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책이기도 하다.

훈민정음도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한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은 반대했다. 한글을 만들고도 반포하는데 3년이 걸렸다. 설득하고 꾸짖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다.

세종의 긍정적인 정신, 창의적인 정신, 도전적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이탈리아에만 르네상스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있었다. 그 맞물린 시대의 역사성이 주는 의미는 분명 크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고, 한 권의 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설계도면도 없이 경복궁을 지었고, 거북선을 건조할 만큼 시공을 뛰어넘는 공간자각능력이 있다. 또한 한글이 우리의 생각을 도식화시켜주고, 지식화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IT 일등국가로서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세종의 정신과 함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이야말로 제2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며, 지금의 혼란을 뛰어 넘는 탈출구가 될 것이다. **김재**





관계의 비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며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필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의 서거 소식이 마스크를 타고 퍼지자 떠들썩했던 한국사회는 잠잠해지고 조문정국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서거 소식이 들리고 하룻밤 새 5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병원을 찾았다는 뉴스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십 수년을 버텨온 절연한 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말았다.

혼자 조문 가기가 쑥스러워 그의 재임시절 정부혁신위원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역임한 조창현 박사와 연락해 문상 동행을 하기로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수많은 문상 행렬에서 이른바 VIP 인사들을 보면서 故 김대중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생애에 다양하게 색칠을 하고 관계를 맺은 비밀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분들이 고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맺어왔던 관계의 비밀들을 생각하며, 어쨌든 인간은 사는 동안 뜻있게 살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그렇다. 사람은 일생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됨과 인생사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국내외의 모든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그가 90에 가까운 생애를 통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장례정국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들어 낸 것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이희호 여사와 부부로 만나서 살아온 반 백년의 세월과 파란만장한 정치생활을 통해서 엮어온 관계의 비밀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88년이라고 기억되는데, 필자가 동교동 자택에 초청 받았을 때 이희호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식사를 나누면서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드문 안정된 가정생활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의 존경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어떠한 사람도 외딴섬과 같은 존재일 수는 없다. 또한 인간은 육체와 정신 또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는 관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도 갖기 마련이다. 나를 우주 속에 만물의 영

장으로 태어나게 한 창조주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가족과의 관계, 결혼을 통해 만난 부부관계, 공간 속에서 만나게 된 이웃관계, 학습 과정에서 만난 학연, 직업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관계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생활을 하거나 종교활동을 하거나 가족들과 어울려 살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정치와 같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한 일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며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길은 용서와 사랑밖에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이다. 바람을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풍자를 만들 수는 있다.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기회를 놓치거나 대양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미움에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다. 그 고통에서 해방하는 비결이 용서와 사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 상처를 인정하라. 둘째, 솔직하고 정직하라. 셋째, 원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라. 넷째, 용서를 선택하라. 다섯째, 용서를 말로 표현하라. 여섯째, 허물을 덮어줘라. 일곱째, 사랑을 보여줘라. 여덟째,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홉째, 가능하면 화해를 시도하라. 열째, 새롭게 시작하라.

인생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자기도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창조된다.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미 마음은 천국에 살고 있다. 천국과 지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답이 있다. ■■■■

CEO는 항상 새로워져야 창의와 혁신으로 만들어 가는 글로벌경쟁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CJ그룹 회장



사진_오경근 원장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때문에 성급한 출구전략을 쓰기보다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반면 확실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의 재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77년 삼성화재 사장을 시작으로 95년 CJ그룹 회장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CEO로만 33년. 그는 CEO라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의와 혁신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CEO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확보된다는 것이 손 회장의 지론이다.

그 누구보다 풍부한 기업경영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CJ그룹을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을 만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할 방법과 함께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경영의 지혜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손경식 회장

1939년 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삼성전자 근무를 시작으로 삼성화재 이사를 거쳐 77년 삼성화재 사장에 취임하면서 CEO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삼성화재 부회장과 CJ 부회장을 거쳐 95년 CJ그룹 회장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는 동안 33년간 CEO로 활동 중이다. 2005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큼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의 위기대처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위기일수록 CEO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내외 경제동향이나 관련 산업의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예측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하죠. 아울러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창의와 혁신의 조직문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라고 해서 R&D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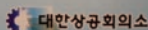
회장님께서도 33년간 CEO를 역임하시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나이가 많은 적든 기업, 그리고 CEO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만 고집해서는 발전할 수 없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물론 199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CJ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중시 경영과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CJ그룹은 지금도 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한중일 3국의 경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국의 향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은 그동안 상당한 고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연 7~8%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2009 경제 살리기! 상공회의소가 앞장서겠습니다

2009년 신년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2009 신년인사회

중국은 당분간 고성장을 유지할 걸로 봅니다.

일본은 최근 여러 수치상 경기가 바닥까지 내려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거죠. 일본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우리에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기회이자 한편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부양책은 우리 제품의 판매 증가를 불러오면서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중국의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것은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죠. 물론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등의 기술격차는 아직까지 크지만 가전산업 등에서는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재하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경제나 중국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 상승, 신용카드채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거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도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회복은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컸는데, 하반기부터는 재정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도 관심사죠. 다른 나라와 비해서는 비교적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中韓綠色經濟合作論壇 한중 녹색경제 협력포럼



孫京植

▶ 대한상의가 주최한 한중 녹색경제 협력포럼

지방은 제조업 31%, 건설업이 7.4% 구조 가지고 있어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더 크게 느껴 지방 경영여건 수도권의 65.6%에 불과해 기업들 지방투자 꺼리는 상황

다쳤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고, 기업들은 지방투자를 꺼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직까지 경기회복이 윗목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방경제는 생산, 투자 등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은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중소제조업 등 경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의 비중이 높아요. 2007년도 기준 업종별 지역내 총생산 구조를 보면 수도권은 제조업이 17.5%, 건설업이 5.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외 지방은 제조업이 31%, 건설업이 7.4%를 차지해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한편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정부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경제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추산 지방 미분양주택 추이를 보면 2007년 6월 기준

8만호를 조금 웃돌던 것이 지난 6월에는 12만호에 이를 정도로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꺼리게 되는데요. 수도권에 비해 작은 시장규모와 주택, 교육, 의료 등 열악한 정주여건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산업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교통의 불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한상의에서 3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저해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향후 3년간 지방투자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2.6%가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계획은 있으나 실행여부가 미정이라고 답한 비율도 21.1%나 됐죠.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경기 및 경영여건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서는 지방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수준이 수도권(100% 기준)의 6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경영활동의 기본방향도 안정위주의 전략을 펴겠다는 답이 62.7%인데 반해 성장위주의 전략을 펴겠다는 답은 23.3%에 불과했습니다.



▶ 장만기 회장과 손경식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에게도 신성장동력 될 것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는 기업에 부담될 수 있어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가 많아서 투자가 힘들다고 불만인데요.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규제는 존치해야 할 가치와 해제해야 할 가치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존치해야 할 가치가 클 경우는 해제하지 못하고 존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상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을 설립해 다양한 해결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각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많은 기업들과 면담을 통해 문제제기를 받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400여개의 규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했고, 그 중 500개 정도가 받아들여졌어요. 현재 입법절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것은 지방으로 가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어서 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점차 실효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8월 15일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죠.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협력 공조가 지속 발전되는 것이 중요하죠.

산업측면에서도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이 될 텐데요. 정부도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 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배출권 거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우리 산업이 감당할 수 없고, 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은 현실적으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하반기 정책기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 잘 극복해왔다고 봅니다.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쓴 것이 주요했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준비는 하더라도 당장 쓸 때는 아니에요. 과거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경기부양조치를 일찍 거둬들였다가 살아나던 경기가 다시 주저앉아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 초반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경기부양 기조를 선불리 바꾸었다가 재정건전성 불량을 초래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침체를 경험했었죠.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출구전략을 쓰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 갖는 손경식 회장



▶ 기업 현장 방문 중인 손경식 회장

CEO는 노사관계의 원칙 지켜야 고용없는 성장시대, 지식서비스산업 확대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

최근 쌍용자동차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노사문제가 늘 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 안정을 위한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기업이 발전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CEO는 노사관계에 있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영권에 대한 침해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벗어나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는 노사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CEO는 필요하다면 회사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근로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로자도 회사발전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도 폭력이나 불법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사관행 정립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8개의 직업훈련원이 있고, 그 아래 25개의 직업훈련센터가 있어요.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2년간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 최근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대기업은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재직자들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양성된 인력을 사회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이긴 한데, 사실 그 전에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우대받는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해요.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은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고용없는 성장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인도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도 산업으로 인식해서 여기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앞으로 도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하고, 이



기업의 인재양성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상의는 전국의 기업을 회원사로 하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많은 투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상의에서는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

를 위해서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됨으로써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사회도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기업도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민족끼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활동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2016년이면 절정에 이르고, 총인구는 2018년이면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겠죠. 노동력만 가지고 봤을 때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데,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기업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고령화 역시 세계적인 추세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복지예산은 자꾸만 늘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국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제는 나이 들면 퇴직하고 싶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령화 근로조건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등 여러 제도의 변화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처럼 나이 먹는다고 급여도 자동 인상되는 것은 고려해 볼 일입니다.



▶ 손경식 회장은 CEO의 창의와 혁신을 강조한다

회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연구원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과 함께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6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초찬강연회를 맞이해서 축하의 자리에 참석했던 기억이 새롭네요. 인간개발연구원이 3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기업인들의 능력개발과 교류를 위해 애써온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며, 그 업적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현역 CEO, 임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시대적 문제제기와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핵심인재이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 연구원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K>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 제9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기획특집

* 본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토론의 장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2009 제주 CEO 섬머포럼'의 주요 세미나를 기획특집으로 지상중계합니다.

제27회 제주 CEO 섬머포럼 지상중계

생각의 진화로 미래비전을 디자인하라

올해로 27회를 맞은 '인간개발연구원 제주 CEO 섬머포럼'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5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도전하며 성장을 이룩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섬머포럼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장전략, 미래를 창조하는 경영의 지혜, 불황의 파도를 뛰어넘는 도전과 극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테마로 "생각의 진화로 미래비전을 디자인하라"는 대표주제를 정했습니다.

조순 前 경제부총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어운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김중창 금융감독원 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재철 LG CNS 사장, 손욱 농심 회장,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등이 초청된 가운데,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하반기 경영구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김미경 W.Insights 대표, 정이안 정경연 이안한의원 원장, 채바다 시인 등의 특강을 들으며 경영자들과 그 가족들의 문화적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MC 김중석과 함께 하는 친교 한마당, 판소리 명창 안숙선과 함께 한 친선음악회는 참가자들간 교류와 친분을 쌓는 기회를 제공해 섬머포럼이 학습과 휴식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김중석**

글-정용달 팀장 / 사진-서봉석 팀장



제27회 제주 CEO 섬머포럼 단체사진



제주섬머포럼 세미나 전경

참가자 모습





1



2

- 1 환영리셉션에서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
- 2 7월29일 야외가든에서 진행된 환영만찬
- 3 7월30일 안숙선 국악인 친선음악회
- 4 7월30일 인경희골프대회 시상식
- 5 7월30일 인경희골프대회



3



4



5



6

- 7 7월30일 제주 올레길 참가자들
- 8 7월30일 친선만찬에 모인 참가자들
- 9 7월31일 연구원 회장배 골프대회



7



8



9



10



11

참 가 자 모 습



기조강연

지구촌 경제위기, 기업의 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비전

조 순 前 경제부총리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지 금의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위기로 봐야 한다. 그래서 금융 파트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경제에 있어 실물경제가 진짜 경제다. 이 부문은 아직 서광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경제에 있어 실물부문은 아주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번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이 원인이다.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미국경제에서 먼저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 전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우선 금융이 너무 비대했다. 그리고 그 안에 독성이 많았다. 말하자면 금융의 불균형이다. 실물 부문은 아주 적다. 세계의 경우는 실물이 강하지만 미국은 실물이 약하다. 금융은 비대해지는데 비해 실물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의 모델은 불균형한 점이 너무 많다. 기업의 목표가 주로 주가가격에 있었다. 그리고 CEO를 비롯해 은행 간부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다. 이 과정에서 일반 근로자의 생활은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경제는 오래갈 수 없다.

세계의 입장에서 불균형이 있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세계는 호황을 누렸다. 그 호황은 미국에 대한 수출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상수지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적자였다. 미국은 그 적자를 빚으로 메웠다. 그 과정에서 금융이 비대해지고 거품이 일어나면서 결국 터진 것이다. 위기가 터지자 미국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일단 발등의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길게 보면 비정상적인 불균형은 없어지고 정상화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정상화를 되찾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혼란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인플레이가 염려된다. 인플레이 또는 디플레이가 일어날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도 무엇을 해야 할 지 역할을 되찾을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돈 찍고 금리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지 모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그렇다.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겪을 가장 큰 문제는 고용문제다.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자국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내셔널리즘, 다수의 디글로벌리제이션, 즉 다소간 글로벌 경제의 후퇴가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금융위기가 미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출이 감소하고 달러의 강세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다. 한국경제가 이 구조를 잘 조정해서 튼튼한 경제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수가 더 필요한 단계이다. 이게 정상화이고 균형이다. 내수를 살린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실패해왔다.

특히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 영국의 대처 수상이 한 얘기가 있다. 현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대처 수상의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는 이 기간 동안(보수당 야당시대) 재삼재사 반추한 세 가지 점이 있었다. 첫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영국 경제의 침하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맞아야 한다." 내려가는 경제를 올리는 것과 맞지 않는 경제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정책은 세심하게 그 소요비용을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어떤 정책이 공공지출계획과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우리의 예산과 맞지 않는 돈 많이 드는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능한 내각재무부에서는 개개의 정책 소요 경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서 전체 지출계획과 어긋남이 없도록 확인했다." 절대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갈 길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목표가 아무리 멀더라도 우리는 국정의 기본적인 방향전환을 해낼 것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떤 정부든지 앞으로 잘할 생각이 있다면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재민

한국경제와 금융,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 종 창 금융감독원 원장

뉴욕대학의 루비니 교수가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비관적인 전망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도 전 분기 대비 2분기에 2.3% 성장했다. 1년으로 따지면 8% 이상 성장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회복이 U자형이나 W자형이 아니라 V자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세계경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IMF는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기존 1.9%에서 지난 6월 2.5%로 수정했다. OECD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2%로 조정했다.

국내경제는 최근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정부도 기업도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비관해서도 안 된다. 지금의 성장은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1분기만에 2%까지 낮추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문제는 확장 기조가 민간투자, 소비로 연결돼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투자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도 어렵겠지만 투자는 어려울 때 시작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IMF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고, 기업과 은행들이 쓰러졌다. 그 때는 죽은 시체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고치는 것이다.

기업 스스로는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 병원에 오라고 하니깐 안 오려고 하고, 은행도 고치려면 돈이 드니까 당장의 손해 때문에 싫어한다. 모두가 싫어하는 걸 정부가 나서서 할 수는 없다. 지금 기업에 구조조정 해라, 여신 끊어라 하면 정부 상대로 당장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그 대신 지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는 뒤에서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동안 건설업, 조선업 등 어려운 업종 중심으로 하다가 여신이 많은 대기업 몇 곳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다.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신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환자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법



이 구조조정이고 현 위기의 대책이면서 위기 이후의 대책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한 때 금융기관, 은행들이 쓰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은행이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BIS자본비율이 지난 3월 말 12.94%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정부가 20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다. 그 중 지금까지 4조원을 썼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은행의 부실비율이란 것이 있는데, 6월말 우리나라 은행들이 평균 1.5% 정도 된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건실한 수준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위기 극복에 대처해야 한다. 재정이나 금융, 통화 쪽에서 획기적인 확장정책을 쓴 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조치를 정상화하

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정상화를 위한 대비책도 세워야 하고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유동성 관리이다. 우리가 비난받았던 것이 은행들의 외형 확장정책이다. 2005부터 4년 동안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해주면서 외형확장에 힘썼다.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가 막아서 연체율이 0.5% 정도밖에 안 된다. 문제는 중소기업대출이다. 연체율이 2.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쏠림현상이다. 쏠림현상은 늘 볼 수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3년 카드사태도 그랬다. 앞으로 이 쏠림현상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해낼 수 있다. 물론 우리 경제가 가진 단점도 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늘 꼴찌하는 것이 노사관계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장점도 많다. 우리는 세계 1등 산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맞은 위기에서 빨리 빠져 나오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길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축적해야 한다. 문제는 재벌이든 국민이든 모두가 화합에 힘써야 한다.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고 화합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위기에서 빨리 빠져 나오고 위기 이후에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종창**

Social Design

우리시대 희망을 말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내 직업을 ‘소셜디자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외국을 다니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했기 때문이다. 패션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도 있는데 우리사회를 디자인하는 직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미국에 가보니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해 일하는 거대한 직업군인 NGO, NPO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적 시스템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2000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게 되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70만원을 기부한 것이 첫 번째 기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전 급여를 기부해서 환경미화원을 위한 등불기금으로 만들었다. 허영만 만화가도 킬리만자로에서 전화를 걸어와 “산에서 자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추위는 참겠는데, 아래로부터의 냉기는 참을 수가 없다. 1천만원을 드릴테니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매트리스를 전해주소”고 했다. 박영임 할머니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싶다는 본인과의 약속을 약속기금을 만들어 지켜내셨다.

‘기부’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캠프를 개최하면서 아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기금을 들어준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커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미국 북가주, 뉴욕에도 생겨 100만불 이상을 기부 받고 있다. 현재 150여개 기금이 생겼다. 정신대 할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하셨고,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사장이 내놓은 주식 50억원은 싱글맘을 위한 창업기금으로 사용됐다.

기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모인다. 10%, 20%는 불가능하지만 1%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작년에 135억원을 모금했다. 그러나 기부금액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에 기부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좋은 일에 그 돈을 쓸까 고민한다. 좋은 기업인은 사회 변화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영리단체인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아름다운가게를 만들었다. 전국 100여 개 지점에서 1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이템 하나가 2000원 정도 하는 품목들이니 엄청나게 판매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주목한 것이 공정무역이다. 네팔의 커피생산 농민에게 제대로 된 값을 주고 사서 재활과 자녀교육이 가능하게 해준다. 돈으로 돕는 것은 부패화 된 구조로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커피 한 잔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커피를 드시겠는가. 최근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에도 입점했다.

그 후 희망제작소라는 사회창안기관을 만들었다. 2600개의 좋은 아이디어를 진전시켜서 씨앗아이디어, 새싹아이디어, 나무아이디어, 열매아이디어로 나누고 시민평가단이 평가하고 정책 제안하고 마침내 현실이 되어간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수영장에 가면 3일치를 깎아 준다. 임신초기의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뺏지를 만들었다. 중형에 검정색이 대다수인 관용차를 아웃소싱하고 경차에 색깔도 다양하게 바꾸었다. 인터넷 법원 만들기, 유통기한 외에 제조일자 표기하기, 지하철 손잡이 높낮이 다르게 하기 등 많은 사회적 시스템을 제안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본 트럭방수천, 자동차튜브, 자동차시트와 벨트가 원료인 프라이탁 컴퍼니, 가방을 보고 만든 에코파티메이리 등이 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들어 판매하는데 인사동에 상설매장이 있고, 금년 1월부터 뉴욕 모마현대미술관에 납품, 유럽 총판권을 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이다. 사법연수원 강의에서 만나 한 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현재 7명의 변화사가 활동하면서 독립을 앞두고 있다.

나는 기업가정신이란 말에 큰 감동을 받는다. 일본 기프트쇼에 가면 몇 백 개의 작은 부스 하나가 몇십 년 이상의 기업들로 기업가정신을 담고 있다. 소니나 도요타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MITAKAISM에 의하면 “1만 명을 고용한 기업 하나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1인을 고용한 만개의 기업을 만들기는 쉽다”고 한다.

우리나라 리더들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연과 생태와 디자인과 대체에너지를 알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5년 전부터 ‘석유를 넘어서’라는 캠페인이 나왔는데 우리의 녹색성장은 이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 멀리서 찾지 말자. 집 앞의 들판이 자산이다. 시골의 한옥들을 패키지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만든다면 내셔널지오그래픽에 특집으로 나올 것이다.

홍쌍리 여사의 매실명가도, 식물 스트레스를 고민한 농민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 농촌이 희망이고, 농업도 얼마든지 과학화 공업화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 **박원순**

위기돌파력이 강한 '가족DNA'의 완성과 가족성공학

김미경 W.Insight 대표

나는 충북 증평군 시골출신이다. 내가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증평에서 태어난 것과 우리 부모님 딸로 태어난 것이다. 증평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6학년까지 피라미의 머리로 제일 잘난 줄 알고 자랐다. 그러다가 청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도시 아이들 수준이 너무 높았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 성향이란 게 있다. 증평에서 6년 동안 피라미 머리를 해온 터라 뱀의 꼬리가 될 수는 없었다. 도시 아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했더니 결국 그들도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대학을 연세대 음악학과를 목표로 정했다. 교수레슨을 받는 서울 애들과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당당히 수석 합격했다.

서울에 와서 느낀 것은 피라미나 뱀이나 용이나 머리가 하는 짓은 다 똑같다는 것이다.

머리의 역할을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살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하루가 있었다. 대학교 4학년 때였다. 4학년이 되니 친구들은 벌써 선을 봐서 부잣집 남자와 약혼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친구들 권유로 부잣집 남학생과 미팅을 했는데, 집안간의 문화적 경제적 지식적 차이가 너무도 커서 충격을 받았다. 증평에서는 중졸이 보편적이었던 그 시절, 미팅했던 남학생 집안의 조부는 워싱턴 유학에 정치외교과 교수고 어머니도 이대 교수란다.

갑자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난 건지 내 가족사를 거슬러 올라가 정확히 알고 싶어졌다. 그날 나는 한국근현대사 역사책을 8권 샀다. 자본주의가 마구 뒤틀리면서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던 시대였다. 나는 그때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미팅했던 남학생과 비교해 뒤떨어진 우리 집안을 조금이라도 압축해서 따라잡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가족의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첫째, 가족의 비전에 대해서 꼭 생각해볼길 바란다. 가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과 내 아이들, 내 집안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기를 바라는지 가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가정은 비전이 없다. 요즘 아이들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다는 걸 토플 예제에서 읽고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인문학적인 사회가 불가능하다. 오늘날 시골에서부터 천천히



순서를 밟아 서울대에 간 아버지들이 내 자식은 덜 고생하고 바로 서울대 가기를 바라면서 급조된 시스템으로 자식들을 키우기 때문에 엉망이 되었고, 정작 아버지보다 못한 인재들이 수도룩하다.

둘째, 집안에 문화가 없다. 아버지들은 밖의 문화 만들기에 정신없다. 가족의 방향을 아버지가 계속 말해주어야 하는데 엄마가 옆집 아줌마들과 급조된 시스템으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문화란 것은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버지가 문화의 중심이 되려면 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없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 왕따가 된다.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가 어려서는 대화를 하다가 중고등학생이 되어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지면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못한다. 그런 자녀들이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되면 더욱더 대화하기가 어렵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가 성공했다고 그것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DNA로 축적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DNA가 집안에 축적이 안 되고 밖에서만 축적되었다면 그것이 집안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된다. 몇 년 전 어머니가 급성 류머티스로 인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었다. 다행히 절단은 하지 않고 쇠를 박는 수술을 했는데, 고문에 가까운 수술로 간병인 6명을 바꿀 정도로 사후관리와 고통이 컸다. 그런데 모든 간병인을 뒤로하고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 간병에 성공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3개월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우셨다.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란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룬 일종의 창업이다. 자식이란 직원이 생기고 잘 양육해서 내보내면 그게 계열사다. 본사에 축적된 문화와 부와 지식의 정도가 양질이면 계열사도 그걸 이어간다. 손자 세대인 그 다음 계열사도 계속 이어간다.

내가 이룬 문화가 선한 지식이 되고 부(富)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 자식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노력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데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김미경**

경영특강 1

디지털 이노베이션

신재철 LG CNS 사장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요소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00년 동안 기술로 인류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왔는지 살펴봤더니 디지털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난 40년 동안 현재 부의 77%가 축적되었다고 한다.

21세기의 주요기술은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다른 종류의 방법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활용된다. 스틸버그 감독의 영화 'Minority Report' (1999년)는 2050년을 대상으로 저명한 미래학자와 과학자들로 구성해서 만든 영화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난 현재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기술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빨라졌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세대, 아날로그세대, 그 중간에 디지털로그세대, 이렇게 3세대로 나뉘지고 있는데 기술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다.

변화의 흐름에는 고객의 변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변화, 기업의 변화가 있다. 고객의 변화 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변화로 좋은 예가 있다. 세계에서 창조적인 회사로 유명한 애플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경계를 제거하고 유료장으로 만든 '앱스토어(App Store)'이다. 장터관리는 애플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만들어 올려서 팔고 이익을 나눈다. 애플이 지난달 중간에서 얻은 이익이 한 달에 약 400억원이라고 한다.

나이키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칩을 하나 달고 뛰면 모든 기록이 통계로 잡혀 나온다. 전 세계인들이 5km, 10km 코스별로 마라톤을 하는데, 동시에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출발하면 온라인 상에서 기록이 집계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디어가 애플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애플이 나이키를 파트너로 잡은 것이다. 애플이 얼마나 오래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다.

교육사업을 보자. 사실 동영상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가 교육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시공미디어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까지 수출하는 프로



그램으로 초등교과서 전자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인 i-Scream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동영상, 정보 등을 검색해서 교육자료로 편집할 수 있어 교육효과가 높다. 때문에 교사들이 사비로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앞으로 텍스트처럼 동영상 검색이 용이해지면 교육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RFI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업용으로 보편화되려면 문제는 돈이다. 개당 30원 정도만 되면 모든 물건에 부착시켜 위치, 재고수량, 가격 등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계산될 수 있다. 유통의 혁명은 여기에서 일어날 것으로 본다.

월마트는 2000년에 이미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 주요매장에 부착했다. 월마트는 고객이 다음 주에는 무엇을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과 매장 외에는 별도의 창고가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 오던 기간을 분석해보니까 딸기와 맥주가 많이 팔렸다고 하면 미리 그것을 준비해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모델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업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 사회의 주도권

은 아날로그세대가 갖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리더십 측면에서 아날로그세대, 디지털세대, 디지털로그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변화와 특히 소비자시장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더 붙어 해외 선진서비스를 주시하고, 누구와 파트너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포드는 "내가 고객 얘기만 잘 들었으면 빠른 차가 아니라 빠른 말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빠른 차를 만들었다"고 말한바 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빠른 '말'이 아니라 빠른 '무엇'이라는 것이다. 미래의 기술을 보고 시장을 보고 고객의 말을 깊이 헤아려서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

CEO를 위한 경영의 지혜 십이지 경영학

손욱 농심 회장

한 국은 소득 1만불을 뛰어 넘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왜 아직도 2만불을 못 넘는 혼란 속에 사는 것일까.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 받던 나라였는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반면 반도체, 전자, 조선업 등 세계 일등을 달리는 기업도 만들어지고 있다. 차이가 무엇일까?

십이지신, 12띠 동물 속에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12지신의 지혜를 제대로만 익히고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할 수 있다면 누구나 훌륭한 가정, 개인,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리더는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조직의 비전, 미션, 목표를 정한 후 현재의 조직역량, 의식구조, 기업문화와의 갭을 분석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전체 사고의 역량, 혁신의 역량, 상생의 기술을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

뱀은 껍질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이나 조직의 껍데기는 모두 고정관념, 오만함과 과거 성공에 대한 기억이다. 그 틀을 벗어야 한다.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변화경영의 기본이다.

말, 천리마는 한 끼에 한 섬의 곡식을 먹지만 말을 먹이는 사람이 천리마를 알아보지 못하면 보통 말과 같이 죽어가게 된다. 조직 안에도 천리마 같은 인재들이 많다. 최근에 강조되는 것이 강점경영이다. 사람마다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리마, 말이 이야기하는 인재양성이다. 이런 인재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양은 순종, 인내, 평화의 상징이다.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의 상징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은 각각의 국민성에 따라 다르다.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삼통일평(三通一平)의 지혜가 한국형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다.

원숭이는 창의다. 창의 기본은 모방이다. 모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 벤치마킹의 창의는 그것을 분해하여 완벽히 터득한 후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하는 것이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룰과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지키면,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성과를 낸다.

닭은 아침이 되면 정확하게 운다. 기업활동은 인풋의 프로세스를 돌려서 아웃풋을 내는 것으로 이 프로세스에는 수많은 조직과 사람이 걸려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지켜서 전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고의 기술과 혁신의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사회와 또 세계 인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가 뜻하는 신뢰와, 돼지가 뜻하는 모든 것에 공헌하고 함께 나누는 나눔경영이 필요하다. 남을 돕지 않으면 자신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삶의 지혜가 십이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하면 우리 자체가 시너지를 갖게 되고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됨으로써 인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다. **※※※**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그것을 12가지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해봤다. 12지신에 숨겨져 있는 선조의 지혜를 사고의 기술(자, 축, 인, 묘), 혁신의 기술(진, 사, 오, 미, 신, 유), 상생의 기술(술, 해)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골고루 갖춘 기업, 인재만이 앞으로 리더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쥐는 예지의 능력이 가장 빠르다. 리스크가 무엇인지 상황을 분석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쥐의 역할이다. 그래서 맨 앞에서 상황을 분석해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인식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이견회 회장이 했던 신경경영이다.

소는 위가 4개나 된다. 그래서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 소화시킨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여러 번 묻고 해결해 가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올바른 분석을 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호랑이는 새끼를 낳으면 절벽에 집어던져 올라오는 새끼만 키운다. 선택과 집중은 결국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을 선택, 집중함으로써 큰 성과를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토끼는 길을 개척할 때 항상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한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대응하면서 불측사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용은 재주를 부리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여의주다. 제일의 여의주는 브랜드가 되는 역량이다. 특별한 핵심역량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고객의 요구와 딱 맞아야 한다. 고객의 요구를 맞추지

경영특강 3

세계의 관문, 한국의 자랑 인천국제공항 ASQ 4연패 성공신화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 관리를 맡은 지 10개월이 지났다. 공기업을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올해로 4연패를 기록하는 공항으로 성장했다.

1996년에 공항설립을 기획하고 건설에 착수해 2001년 개항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항설립 기획에서 개항 때까지 과연 제대로 건설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개항 이후 2005년까지 1억명이 공항을 이용했고, 작년에 최우수 공항 선정 4연패를 달성하면서 이용객수도 2억명을 돌파했다. 또 운영노하우를 세계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해 1조원이 넘는 매출액과 2천억원 이상의 순익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연간 3천만명 정도이며, 화물은 250만톤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 수출입 물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취항 노선도 50개국 161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에서 뒤지지 않는 공항이 되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국가경제의 중심이자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의 환승공항으로써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규모와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목표와 꿈을 갖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공항이 되자,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공항으로 만들자, 전 세계 공항 전문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자, 그리고 공항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5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덕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에게나 도덕은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이념으로 항상 스스로에게 도덕과 윤리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또한 투명하고 진실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리더와 조직구성원들 스스로가 윤리의 준수자임과 동시에 감시자가 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나무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나무이듯이 기업의 성장도 자연의 원리와 같다. 공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공항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놀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에어시티를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외공항 운영을 의뢰 받아 우리가 직접 해외의 공항을 관리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셋째는 성과창출이다.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Ship&Air로 연계되는 사업확장으로 제조기업의 물류·유통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물류 이동의 신속함을 제공해 항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환승률이 20%로 상승하고 물류·유통량 또한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승객과 물류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해 공항을 확장해서 6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업 매출액을 여객 1인당 기존 35불에서 50불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넷째는 사회공헌이다. 사회적 책임을 가진 리더로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솔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극장, 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춘 복지관을 만들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며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

다섯째는 항상 변화에 대비하라, 그리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하라고 주문한다. 잡 호스팅 시스템을 채용하여 스스로가 뽑고 싶은 인재, 본받고 싶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고과를 통해 밝고 진취적이며 희망을 가진 인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5가지 철학 외에도 우리는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안전, 신속,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콘텐츠 제공을 통해 다른 여타 공항과는 감성적으로 차별을 두는 최상의 공항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채욱**

위기경영에서 필요한 리더십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川流不息 淵澄取映(천류불식 연징취영)” 우리 회사의 조순 사외이사께서 주신 글이다. 시냇물이 끊임없이 흐르면 마침내 못을 이루어서 그에 비취는 그림자는 마침내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학문도 인격도 경험도 끊임없이 연마하고 단련할 때 마침내 천지같이 많은 물이 모이고, 그러면 물이 흔들림 없고 만물을 비추게 된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 그림자를 비출 수 있는 연못이 못 된다”고 하셨다.

나는 입사했을 때의 명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회사에서 진급시켜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 이 좋은 회사에 어떻게 하면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면서 동기이론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다. 결국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어버이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공통적인 리더십이라고 본다.

내가 영어 못하고, 엔지니어가 아니고, 지방대학 출신이지만 직원들이 만일 존경한다면 ‘실패를 이루기 위한 기술’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도 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소개한다.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 잎 수천 장을 데리고 벽을 넘는다’는 부분이 우리 인생을 반영한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회사에서 수없이 이루기 위해서 영어를 못해도 좋고,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좋고, 때로는 부도 직전까지 가도 좋고, 마침내 같이 더불어서 손잡고 나아가는 부분이 리더십의 기술이라고 본다.

나는 e메일보다는 편지를 좋아한다. 2004년도에 CEO 자리에 오르면서 6년 동안 참 어려웠다. 그해 50번도 넘게 공장으로 ‘발’의 방문을 했다. 해마다 1월 1일만 되면 6시간 동안 56개 전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랬더니 다음 교대조가 보기 위해서 좋을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이 ‘글’의 방문이다. 이걸 내가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분들이 먼저 해줄리 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주말 SK프로축구단이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겨서 6위까지 갔다. 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썼다. 결승골을 넣은 구자철 선수와 부모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글을 많이 쓰는데 직원들과 공유



하는 좋은 시스템이 된다. 140통의 편지를 썼는데 재미없는 글은 247명, 재미있는 글은 5900명도 있다. 이걸 보고 또 보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라톤 풀코스를 23회 뛰었다. 2001년 9월 춘천마라톤에 처음 나갔을 때 기록이 4시간 39분이었다. 집사람이 펄떡펄떡 뛰면서 감동하며 울었다. 2003년 동아마라톤부터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1만원씩 기부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기부 받기 시작한 것이 지금 467만원이 되었다. 1만원 받는 대신에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달린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지금은 6천8백명이나 돼서 40명이 나눠서 같이 뛰고 있다.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노조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2004년 하루에 20km씩 뛰면서 길거리에서 봉급인상 얘기를 하자고 했다. 2004년도에 울산에서 서울까지 447km를 뛰었다. 2005년에는 572km를 뛰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임진각에서 울산공장까지 거리인 557km를 뛰는데 장애인들과 함께 했다. 엄기봉씨, 배형진 선수와 어머니, 시각장애인 추신영씨 등과 함께 하면서 20km씩 뛰면 다른 사람들이 바통을 이어 받아서 뛰었다. 그 가운데 직원들 1100명이 참여했다.

그들이 뛰면서 뭘 느꼈을까. SK에너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급여의 20~50%를 반납했다. 작년 보너스를 1월에 주는데, 임원들의 20~30%는 반납했고, 직원들도 50%는 받고 나머지는 받지도 못했다. 내가 지시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 지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끝도 없이 만들어 가는 시작이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72년 입사통지서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볼 때마다 처음 뜯을 때의 조마조마했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내 명함을 스크랩해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나 이외에 내 명함을 간직해 줄 사람은 없다. ‘내가 마산에 근무할 때 이랬었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며 감사해 한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운 세상 위기 잘 넘기고 행복한 세상, 행복한 기업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 **김재민**

굿모닝건강

스트레스 제로의 기술

정이안 정경연 이안한의원 원장

보통 건강하다고 하면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서적인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건강하다고 표현한다. '건강하다'는 기준의 잣대는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감, 자율신경의 균형, 집중력과 기억력, 충동·파괴 행동의 조절, 매사에 활기와 의욕적인 생활, 식욕, 습관 및 중독의 조절능력 등이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좋으며, 숙면을 취하고, 주로 아침형 인간들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밖에서 주는 것이 있고, 안에서 만드는 것이 있다. 스트레스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를 주변 요인으로만 돌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이 나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부요인에 의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할 때 형제들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격과 체질에 따라 스트레스를 달리 받는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 같이 온다. 이것은 호르몬 때문만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변화되어 나타나는 결과다. 자율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능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교란이 생겨 문제가 일어난다.

교감신경계는 목뼈에서 허리뼈를 지나 꼬리뼈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 완성시켜주는 부교감신경의 위치는 뇌 주변에 있다. 척추가 흰 사람들은

스트레스 질병이 많다. 척추가 휘면 주변의 교감신경계 위치가 흐트러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혈액은 우리 몸이 편안할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집중하여 오장육부로 물리게 된다. 오장육부로 혈액이 물리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엉뚱한 곳으로 혈액이 물리면 몸이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오장육부를 벗어난다.

그러면 간에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위장에 혈액이 몰려 소화불량을 겪게 되고, 신장도 방광염을 앓게 된다. 오장육부를 떠난 혈액이 뇌에 물리면 불면증에 걸린다. 가슴쪽으로 혈액이 몰리면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에 물리면 근육이 단단해진다. 이것은 간단하게 자기 근육을 만져보는 자가진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은 협심증, 만성 피로 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병원까지 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적으면 2개, 많으면 5개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온다. 이 사람들의 병이 오기까지 경위를 살펴 스트레스라는 확신이 들면 치료를 한다. 치료방법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고,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치료하다보면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낫는 녹두 사라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수다, 그냥 참는다, 술을 마신다 등의 방법을 많이 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참는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행복호르몬을 자가 생산하고, 외적인 요인은 잊어버린 후 내적인 요인으로 바꾸어 나를 바꾸는 것이다. 결론은 나를 바꿔서 행복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생활습관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충분한 호흡, 잠, 아침명상 10분, 가슴을 펴는 자세, 자연채광이 밝은 집, 걷기, 파도소리 및 숲이 주는 자연치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그림, 음악, 여행, 공연, 레저, 음식, 춤 등이며,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우뇌를 활용한 행복호르몬은 자존감과 자기 만족을 높여주고, 정신적 안정과 긴장해소에 도움을 준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이고, 행복호르몬을 늘려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대추, 따뜻한 우유의 트립토판, 멸치의 칼슘, 많이 씹는 현미나 거친 음식, 라벤더 차 등이 좋다. 그리고 가끔씩 카페인과 술은 피해야 한다. **KEE**



하멜과 네덜란드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하멜의 도전정신과 네덜란드의 국가경쟁력

채바다 시인, 한국하멜기념사업회 회장

나에게 서양에서 가장 사랑하는 청년을 꼽으라면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인 핸드릭 하멜을 말한다. 1653년 8월 16일 새벽, 제주해안에 난파되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땅 제주와 인연을 맺는 청년이기에 그렇다.

당시 하멜은 23세의 청년이었다. 난파된 배에는 64명이 타고 있었고, 36명만이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 그 후 하멜은 13년간 조선에 억류되었다. 1666년 15명이 살아남아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멜은 억류기간 겪은 일들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풍습, 제도, 문물 등을 그의 '난파 표류기'에 기록하였다. 이 표류기는 1668년부터 이웃나라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등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한국을 최초로 서방세계에 알린 세계적 고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난파 표류기를 쓴 하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록정신 때문이다. 유럽은 16세기부터 기록을 아주 정확히 했다. 네덜란드 청년 하멜도 기록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사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직하게 썼다. 고통받은 것, 창피 당한 것 등 13년간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억류당한 억울한 사정보다는 조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젊은이였다. 17세기 한국을 서방에 최초로 알린 주인공, 한류의 주인공 하멜은 유배생활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시련을 당했으면서도 한국인의 인심과 성격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소개한 것이다.

하멜의 고향 네덜란드는 지면이 해수보다 낮아 바다를 개척하고 있는 국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바다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을 키워준다. 배의 선원도 12~13세 어린아이들로 구성되기도 했다. 이 아이들이 범선에서 6개월, 1년 이상씩 해상생활을 한다.

이것이 네덜란드의 숨은 저력이다. 바다를 개척하고 지배하지 않고는 주변의 독일, 프랑스 등 강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것이 국가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네덜란드의



도전정신 가운데 하멜이 있었던 것이다.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 때문인지 바다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해일, 홍수를 막기 위한 댐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협동정신, 이웃사랑, 이웃과의 친화력을 얻었다. "지구는 신이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는 말만 봐도 국민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의 협동정신과 책임감, 도전정신과 개혁정신이 모태에 깔려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하멜과 같은 청년들을 길러냈다.

한편,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이 한국인들에게 남긴 감동과 인상은 너무나 깊다. 그가 선수들을 끌어안는 모습은 네덜란드 국민의 친화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글로벌 사고,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타협정신이 오늘날 네덜란드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된 원동력이며, 중심 마인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한 나라, 그 원천에 네덜란드 국민들의 친화력이 있다.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만한 것 같다. 그러나 세계 농산물 수출 2위의 국가이기도 하다. 또 꽃 수출 세계 1위, 담기술 세계 1위이기도 하다. 요즘은 어디서나 모든 장점을 모아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우리의 창의력과 기술을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인 네덜란드와 접목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초일류국가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

네덜란드 국민들의 국제경쟁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17세기 빗장을 걸어 잠근 우리 선조들처럼 지금 우리의 가슴에 걸어둔 빗장은 없는가?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이들의 신 사고와 창의적인 모험심, 그리고 도전과 개혁정신을 벤치마킹해 발전동력으로 삼아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채바다**

국가경쟁력

국가브랜드 제고와 기업브랜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요즘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경제회복의 기회로 인해 다른 경쟁국들과 달리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브랜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국가에 있어 이익이며 중요한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는 한국 외에 6개국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성장을 했고, 세계경제의 리더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는 리더를 따라갈 때는 쉽지만 한국경제가 리더가 돼야 하는 입장이기에 갈 길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각도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지가 현재 우리의 문제다.

1960년대, 1차 산업이 한국을 이끌어 왔고, 지금은 3차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신상품 개발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지르고 브랜드 가치도 더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리더로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불행하게도 KOTRA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원산지 효과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에 비해

30% 싸게 팔리고 있다.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데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이다. 이것이 원산지 효과다. 이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30% 디스카운트되고 있다.

만약 국가와 기업이 합심해 디스카운트된 30%에서 3%만 줄인다고 해도 삼성전자, SK, 포스코 등 한국의 3대 기업의 영업이익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5%를 줄인다면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영업이익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방송 등 미디어에서 기업과 'Made in Korea'를 선전한다면 아마 1~2년 이내에 한국의 디스카운트 10%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



칫 잘못하면 마케팅효과가 아닌 디마케팅 (Demarketing) 효과를 주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국가브랜드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국가브랜드를 '국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을 외국인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국격을 높이고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GDP로 본 해외원조, ODA자금이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원조를 3배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체들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산하로 모아 행정의 합리와 집합화를 단행했다. 앞으로 이 단체를 통해 해외봉사를 활성화하고, 봉사인원도 연인원 4천명에서 4년 내에 2배로 늘려 미국, 일본을 앞서는 단계로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

외국인이 느끼기에 한국 사람은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환학생이나 해외로 기술이전사업을 활발히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해 친절한 국가이미지로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단행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기업의 90% 이상이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브랜드가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부응해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나날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활발한 국가브랜드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가브랜드이미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 국민의 인식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발전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알고, 이를 올바르게 해외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근본이 된다. **김재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등 7개가 등재될 만큼 찬란한 정신문화유산을 가졌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G7 선진 국가들을 따라가기는 매우 어렵다. 오래 전부터 문명을 일궈온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G7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은 연방제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단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방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각부 장관이 있는 중앙정부가 있다. 그 아래 16개의 광역지방정부, 그 밑에 23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단방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거의 독립되어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 지방정부가 23% 정도, 중앙정부가 73% 정도를 가져간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57%, 중앙정부는 43%도 채 소비하지 못한다. 서울시 같은 곳은 괜찮지만 그 외 지방정부들은 중앙에서 돈을 모아서 넘겨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들은 살림이 모자라도 절약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43%의 자본으로 약 60만의 공무원들과 120개 이상의 대사관 유지, 지방정부지원 등 뻘뻘한 살림을 살고 있다. 물론 지방에는 덜 개발된 지역도 많고 자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긴축하는 모습이 결여된 것이 아쉽다.

이명박 정부 이전 세금은 무려 25%를 공무원이 소비하고 일처리는 엉망이었으며, 자본의 소비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해결하기 시작했다. 첫째, 정부부처 수를 줄였다. 부처를 줄임으로써 세금이 줄어들고 공무원 월급도 줄어서 다들 찬성하는 듯 했지만 실제 부처에 관련된 이점을 챙기던 협회, 이익단체는 전부 반대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먹긴 했지만 50년 전의 구조와 비슷하게 많이 줄였다.

둘째, 국가기관을 20% 줄였다. 이 경우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다고 생각하는 다중성 때문이다. 국가기관은 줄였지만 소방방재인력이나 서비스인력,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인력은 늘리고 있다. 인권위원회 인력을 20% 줄이고, 장애인정책을 다루고 이끄는 사람들은 보강했다.

셋째,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만든다. 그런데 정년보장, 정시퇴근, 시간외수당, 연금까지 받는 공무원들까지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물론 특별한 업무로 밤을 새울 수도 있지만 일이 없는데도 시간외수당을 위해 늦게 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공식 사회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근무조건을 가진 직장이기에 노동조합 결성은 잘못된 일이다.

넷째, 호통 리더십을 발휘했다. 공무원들 중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그런데 그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오면 공익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하기보다 다음날 혼나지 않을 것에 대한 생각만 한다. 그래서 호통 리더십을 발휘해 공무원들을 장악했다.

다섯째, 인감도장을 없앴다. 약 3개월이 걸렸는데, 인감을 없애면 1년에 5천억원 정도의 소비가 줄어든다. 도장 파기, 복사비, 컴퓨터, 그리고 인력소비까지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감없이 사는 나라들의 재산매

매, 관리방법만 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한편 우리의 행정기관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줄이고 기관을 줄이는 안건에 대해 국회에서 고려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년 전에 통합되었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통합했더니 공무원이 배치되고도 남아둔다. 지금은 적정수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닌 먼 단위 지방으로 가면 공직자는 매우 필요하다. 자연재해, 산불, 기타 등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존할 곳은 공직자밖에 없다. 도시권 생활에 비하면 농촌에 사는 농어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단기적인 정책을 펴서는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없기 때문에 생활공감 정책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의 카드결제, 원손잡이와 같은 소수를 위한 생활편의 등이다. 3천여명의 행정안전부 모니터반이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또한 생계유지와 가정살림을 위한 기본인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전국 25만명의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 8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구직을 도와주고 있다. 더불어 질서, 공익과 같은 법치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덕치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끝나면 환경기술, 에너지절약기술, 자전거타기 활성화, 잔반 줄이기와 같은 녹색성장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장관으로 자리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KHDI**

세상을 바꾸는 S 리더십

제100회 육군본부 '선진육군 아카데미' 7월15일(수)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前 숙명여대 총장



2006년 4월에 개설된 '선진육군 아카데미'는 본원과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임충빈)가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육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진육군 아카데미는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군 복무자의 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보화를 통해 학습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육군 간부들의 '변화 트렌드' 인식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등 명품강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7월 15일, 아카데미 100회를 맞아 "세상을 바꾸는 S 리더십"을 주제로 기념강연을 해주신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개인도 조직도 리더십의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지는 것을 보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평생의 공부 주제로 삼으면서 연구한 것이 'S 리더십'이다. 군 조직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모든 조직이 지휘관계,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우리사회는 유교문화권이었던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했고, 그에 따른 리더십을 발휘했었다.

그런데 지금 20대에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달라고 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결국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한다. 사람과 사람 관계, 인격과 인격 관계로 보는 것이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야 한다.

21세기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 리더십의 배경은 디지털시대, 정보화시대, 세계화·통합화시대, 스토리텔링시대로 집약된다. 이야기를 할 때 주입식으로 강요하면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스토리를 적용해 이야기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해리포터 작품이 전 세계를 풍미하고, 주라기공원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100만대를 판 값에 버금가는 문화콘텐츠시대가 도래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전문성과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려는 능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가장 빨리 적응하면서 발 맞추어 가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제는 세계화·통합화시대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한·EU FTA 최종 합의문을 선언했는데, 결국 한미FTA가 조인되면 세계 50%의 인구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 그야말로 세계화 통합화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의 거래뿐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다. 특히 우리사회는 20만에 이르는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지시와 명령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만 지켜지는 리더십이다. 앞에서 '예' 하고는 뒤에서 딴소리하는 식이다. 군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진정한 리더십 발휘가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상대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감동시켜야 한다. 그랬을 때 그 리더십은 살아남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특정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리더의 99%는 후천적으로 길러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리더십은 누구나 갖고 있고, 요구되는 보편적인 능력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잠재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군대에서도 간부들만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 리더십 교육으로 목표가 뚜렷해지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러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리더십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런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주변환경이나 능력이 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자신만의 역할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역할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일대기와 단계별로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리더가 됐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명여대의 위기와 제2창학 선언

94년 3월 숙명여대 총장에 취임할 당시 학교 상황은 교내외적으로 복잡했다. 숙대 부지는 고종황제가 칙서에 의해 하사한 땅이다. 그런데 해방 후 법적 정리를 하지 않아 국유지로 귀속되었다. 7개 기관에서 보내온 임대료 고지서와 무허가건물이라며 범칙금 통지서를 보내왔지만 그동안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연체료만 늘어났다.

재정문제도 심각했지만 구성원들의 자포자기와 패배주의,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더 문제였다. 이 정도면 학생들이 안 와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자극을 받거나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외적으로도 저출산으로 교육수요자가 줄어들고, 교육시장이 개방되면서 무한경쟁이 도입되는 시기였다. 교육에 시장원리가 들어오면서 대학 평가를 하고, 서열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그 비전은 모든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전을 만들기 위해 숙대의 장단점 점검이 필요했다. 숙대의 장점은 전통,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 졸업생들의 충성도, 우수한 학생들, 서울역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이다. 반면 단점은 좁은 캠퍼스, 적은 학생 수, 재정적 빈곤, 보수적이고 무사안일한 분위기 등이다.

그래서 적용한 것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영혁신을 하는 것이었다. 교육내용, 행정조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획, 프로그램을 도입해 본질적으로 학교를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 시스템, 문화를 다 바꿔보자는 뜻이다. 사실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리더의 의지와 추진력, 비전이다.

리더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교수, 직원, 학생, 동문까지도 필요하다면 리더십 교육을 시키자는 생각으로 사람을 바꾸기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은 워낙 불신풍조가 강했기 때문에 먼저 신뢰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는데 노력했다. 문화는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토론하는 감성적인 문화를 모토로 잡았다.

이렇게 변화와 혁신 방향을 정하고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첫 단계로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뜻으로 95년에 제2 창학운동을 시작했다. 냉소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이고 활기찬 사람으로 만들어 학교 비전에 공감하면서 개혁에 주도적으로 동참해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비전의 핵심가치와 사명

새로운 비전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장학재단 직원을 뽑는 인터

뷰를 하면서 면접자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핵심가치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를 물었다. 그러나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등은 가치관과 연결된 문제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둘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숙대는 혼란과 무질서,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2 창학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숙대가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계 평화와 인류번영 발전에 기여하는 섬기는 지도자 양성을 숙대의 사명으로 삼았다. 94~95년만 해도 섬기는 지도자라는 말이 없었다. 남을 섬기는 마음에 리더십만 더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명까지 확인했으면 사명에 바탕을 둔 비전을 가져야 실천이 된다. 비전은 미래청사진이다. 숙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리더십교양학부에서 전교생이 14학점의 수업을 이수해야 전공과목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학년 때 그 교육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비전을 세웠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글로 써서 갖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7%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자기의 비전을 글로 써서 갖고 다니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3%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그 3%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 우리 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벤치마킹되는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 전 세계 87%가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이 한다면 분명 무적이 될 것이다. 바람직한 비전, 뚜렷한 목표의식, 확고한 사명감,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일이 일이 아니라 취미가 된다. 신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자극을 준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융성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비전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파되는 희망의 불씨와 같다.

당시 숙대의 슬로건을 ‘세계 최상의 명문여대를 만들자’로 정했다. 그리고 목표는 2006년까지 100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것이었다. 발전전략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민족화의 대학문화를 가꾸고, 지식 공유하고 정보생활문화, 통일조성문화, 섬김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격려하기보다는 비난하는데 더 익숙한 것 같다. 처음에 1000억원 모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두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때까지 졸업생이 43000여명인데, 주장했던 것이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이었다. 4만명이 10년 동안 등록금을 한 번씩 더 납부해주면 600억 정도를 모금할 수 있다. 나머지 400억은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최고지도자과정 같은 프로그램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았다.

모두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방송출연도 하고, 신문광고도 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제2 창학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2006명의 발기인을 정하고 2월 22일 힐튼 호텔에서 1000억원 모금 행사를 가졌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호텔 추산으로 2500~2600명의 사람들이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결국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학교 발전의 기틀이 되면서 성공적인 스토리로 남게 되었다.

비전과 목표 실천을 위한 S리더십

그 다음 세운 비전이 세계 최고의 리더십대학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까지 대한민국 지도자의 10%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S리더십이 나온다. 창조적 지식(Spirit), 미래형 기술(Skill), 봉사적 성품(Service), 건강한 심신(Strength)을 갖춘 사람을 키워내면 대한민국 리더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S리더십의 탄생 배경이다.

창조적인 지식은 창조성, 긍정적인 사고방식, 도전정신, 용기, 상상력, 동기부여 등이다. 미래형 기술은 의사소통 기술, 디지털, 어학 등인데,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술이다. 말로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말은 7%밖에 의사소통 연결이 안 된다. 나머지 93%는 제스처나 어투, 표정, 바디 랭귀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리더십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봉사적 성품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한다. 자기 희생 정신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조직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진다. 봉사적 성품은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심신에 있어 특히 강조되는 것이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불안, 초조, 근심걱정이 많아지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 때문에 지도자는 영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늘 정신적으로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하고 학습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대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문제다.

리더십의 원천은 섬김이다. 섬김의 자세를 바탕으로 ‘VICTORY’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제시(Vision), 전문지식의 소유(Intelligence), 의사소통의 기술(Communication skill),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겸손, 포용력(Open mind), 책임감, 주도성, 사명감, 열정(Responsibility), 긍정적 사고(Yes)를 통해 S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



회원 & 연구원 소식

회원 소식

•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만봉 불교 재단에서는 한국불교 미술의 거장으로 전통불교문화 발전에 공헌한 만봉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지난 8월 26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 **조천제 한국섬김리더십연구원 회장**은 "열정적인 조직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 ▶ 일 시 : 2009년 9월 18일(금) ~ 19일(토)
- ▶ 장 소 : 한국섬김리더십연구원(교대역 부근)
- ▶ 참가비 : 50만원(VAT 별도, 중식 및 교재 포함,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사 10% 할인)
- ▶ 문의처 : 김윤희 대리(Tel. 02-566-3888)

• **성도GL(대표 김상래)**이 후원하는 제6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헤이리 공간퍼플 앞마당에서 멋진 야외공연으로 개최된다.

- ▶ 일 시 : 2009년 9월 19일(토) 오후 6시
- ▶ 장 소 : 파주 헤이리 공간퍼플 앞마당
- ▶ 문 의 : 성도GL 박지인 주임 (Tel. 02-3406-7005)

• **사회적 기업 바리의 꿈 (대표 황광석)** 10월 24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



리스크브에서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 준공식을 갖는다. 1864년 한인들이 공식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한 지 140주년이 되던

2004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고려인들의 기념관 건립을 승인 받은 지 5년 만이다. 연면적 1,300평에 이르는 기념관은 (사)동북아평화연대가 중심이 되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지원과 한국의 시민과 기업들의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 내부시설은 이주역사관, 외래병원(내과, 외과, 치과, 한의과), 다목적공연장, 정보화센터, 한글문화센터, 고려인동아리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130여 소수민족들 중에서 자민족의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념관은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드높이는 명소가 되고 연해주를 방문하는 한인족들이 반드시 방문하게 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기념관 준공식 전에 재외동포포럼과 동북아 평화기금 주최로 기념관 준공의 의의, 한러농업협력 방안, 남북철도와

시베리아철도 연결 등의 주제로 한국과 러시아 합동 세미나를 갖는다. (행사 참가 문의 : 사회적기업 바리의꿈 여행사업부 TEL. 070-7017-7410)

• **장영주 서양화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초청되어 지난 7월 28일(금)부터 8월 4일(화)까지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LG엔시스(대표 정태수)**는 경기도 평택에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연간 8만5000여대 생산능력을 갖춘 금융자동차기기 공장을 신축하였다.

• **원풍물산(회장 이원기)**의 자회사 테라퀘스트가 개발한 암 환자용 서방형 진통제 TQ-1015의 미국 임상시험 1상이 완료되었다.

• **정이안 정경연 이안한의원 원장**은 최근 네 번째 도서 <내 몸에 스마일



(바쁜 직장인의 몸을 웃게 만드는 직장인 처방전)을 출간하고, 교보문고에서 출판기념 강연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월 22일(토) 교보문고 강남점을 시작으로 29일(토)에는 잠실점에서 강연회를 가졌으며, 9월 강연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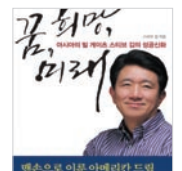
(문의 : 정경연이안한의원 Tel. 02-739-0075)

- 3회 : 9월 5일(토) 15시, 교보문고(분당점) 티움
- 4회 : 9월 12일(토) 16시, 교보문고(목동점) 티움
- 5회 : 9월 19일(토) 미정, 와우북페스티벌 초청강연(홍대앞)

• **전미옥 CMI 대표**는 취업 경쟁력과 신입사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바이블이 될 신간 <대한민국 20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라>를 출간하였다.



• **김윤종 SYK 글로벌 회장**은 지난 30년의 미국생활과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으로서 값진 경험을 담은 자서전 <꿈·희망·미래>를 발간하였다.



• **한무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동헌)**가 파르나호텔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었다. 파르나호텔주식회사는 호텔 소유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대신 '호텔'로 업종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이라는 호텔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원 & 연구원 소식

소모임 소식

• **책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 9월 모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 일 시 : 2009년 9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
- ▶ 장 소 : 문학의 집 · 서울 산림문학관 2층홀
- ▶ 내 용 : 1부 - 김후란 시인, 문학의 집 · 서울 이사장 강연
2부 - 손광성 수필가 강연
- ▶ 문 의 : 정용달 팀장 (Tel. 02-2203-3500 내선 108)

• **다락회(총무 이종원)** 9월 모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 일 시 : 2009년 9월 15일(화) 오후 7시
- ▶ 장 소 : 서울클럽(Tel. 02-2238-7666)
- ▶ 내 용 : 故 박세직 회장 추모식 및 신임 회장 선출
- ▶ 문 의 : 총무 이종원(H.P. 011-306-8587)

• **인경회(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 9월 월례경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오전 5시40분까지
- ▶ 장 소 : 한양CC (T.031-969-0810)
- ▶ 문 의 및 신 청 : 총무 이종원(H.P. 011-306-8587)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이재욱)**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친선야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야유회는 청평호반에 아름답게 자리잡은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마을 뷔띠프랑스를 찾아갑니다. 뷔띠프랑스는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의 주 촬영지로 더 유명해진 명소입니다. 특별히 본원 회원이신 뷔띠프랑스 한홍섭 회장의 스폰과 화목회의 스폰으로 이뤄지오니 참석하시어 모처럼 회원간의 친선도모는 물론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회에서는 인간개발연구원의 폭넓은 회원친선을 위하여 화목회 회원이 아니어도 환영하오니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9월 22일(화) 오후 3시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집결
- ▶ 장 소 : 뷔띠프랑스 TEL.031-584-8200 (청평면 고성리616-2)
- ▶ 인 원 : 본원 회원 40명(선착순, 무료 초청)
- ▶ 신 청 : 이재욱 총무(H.P 011-9131-0559)

• **YCF(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욱)** 8월 모임은 백운갤러리에서 이충희 듀오 사장의 컬렉션을 감상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강요배 화가의 그림과 함께 장영주 화가의 멋있고 세련된 터치의 그림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어 강렬한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9월 모임은 기업은행 지점 중 가장 멋있게 꾸며진 도곡팰리스 지점의 허은영 지점장의 초대로 이뤄집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기업은행 내 최고의 PB팀장의 재테크 강연을 들어보고 도곡팰리스 지점을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오후 6시40분
- ▶ 장 소 : 기업은행 도곡팰리스타워 지점(TEL.02-2057-9831)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임종렬 갤러리 숲 대표**의 자녀 충민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일 시 : 2009년 9월 5일(토) 오후 6시
- ▶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Tel. 02-555-5656)

• **김영덕 (주)유섬 회장**의 차남 수동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일 시 : 2009년 9월 6일(일) 오후 2시 30분
- ▶ 장 소 : GS타워 아모리스홀 (Tel. 02-2005-1011~2)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 1일
KCTC	이윤수	대표이사부회장	9월 1일
(주)한국인식기술	송은숙	대표	9월 1일
창영전자	박세근	사장	9월 2일
디프로텍	고영하	회장	9월10일
주5일넷(주)	이용원	사장	9월15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20일
하이네트웍(주)	권성욱	대표이사	9월21일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황경호	이사	9월30일
(주)다산	윤영상	회장	10월 1일
(주)성신신소재	임병문	회장	10월 1일
성부트레이딩(주)	차진영	사장	10월 1일
한신전선(주)	김영재	회장	10월10일
(주)유니온	김명식	부사장	10월10일
(주)아트앤마인드	김현진	대표	10월15일
(주)엠케이기건	김순만	대표이사	10월15일
흥안실업(주)	탁재용	회장	10월15일
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10월16일
엠에스씨코리아	강관유	사장	10월22일
유리자산운용	차문현	대표이사	10월28일



신규회원

(● 법인회원 ■ 개인회원)



● **전상백**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법인회원 전환)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49 종합빌딩 5층
 · 전 화 : 02-556-2104
 · 팩 스 : 02-511-2110
 · 업 태 : 건축설계, 공사종합감리, 임대업
 · 홈페이지 : www.han-guk.co.kr



■ **강석인** 프리머스HR(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 전 화 : 02-2028-7281
 · 팩 스 : 02-2028-7299
 · 업 태 : HR아웃소싱
 · 홈페이지 : www.primushr.co.kr



■ **고영하** (주)디프로텍 회장
 · 주 소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36번지 셀러빌딩7층
 · 전 화 : 02-2140-4803
 · 팩 스 : 02-3675-5800
 · 업 태 : 컴퓨터 및 tv개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 전 화 : 02-405-5000
 · 팩 스 : 02-405-5009
 · 업 태 : 온라인 정보제공 외 (통신, IT)
 · 홈페이지 : www.kisa.or.kr



■ **안정국** holssi 연구원
 · 주 소 :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우체국사서함 3호
 · 전 화 : 02-878-2759



■ **임윤경** 드림웰빙하우스 사장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 전 화 : 031-890-7925
 · 업 태 : 식품가공



■ **임종렬** 갤러리 숲 대표
 · 주 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번지 대림소핑
 · 전 화 : 02-405-5000
 · 팩 스 : 02-405-5009



■ **이정구** 다산회계법인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0 서진빌딩3층
 · 전 화 : 02-531-7444
 · 팩 스 : 02-539-8602
 · 업 태 : 서비스업 (공인회계사)
 · 홈페이지 : www.dasancpa.com



■ **정남기** 한국TOC경영아카데미 원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 전 화 : 062-530-178
 · 팩 스 : 062-530-1789
 · 업 태 : TOC 경영전문기관



■ **황광석** 바리의꿈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4
 · 전 화 : 02-3273-4283
 · 팩 스 : 02-3273-4288
 · 업 태 : 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제조,도매,무역전자상거래)
 · 홈페이지 : www.baridream.co.kr

연구원 소식

● 본원 양병무 원장 이임 안내

본원 양병무 원장은 학습의 기쁨으로 보낸 7년 2개월을 뒤로하고 지난 8월 6일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02-944-5064 / 팩스: 02-980-7200 / 이메일: bmyang@iscu.ac.kr)

●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 교육사이트 '한경HiCEO' 회원권 우편 발송안내

한국경제신문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의 공동주최를 기념하여 본원 회원님에게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프리미엄 온라인 교육사이트 '한경 HiCEO(www.hiceo.co.kr)'의 1년 회원권(6개월 회원권 2매, 가격 50만원)을 지난 8월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회원권을 사용하시어 온라인 평생학습의 선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 사용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민선아 과장 Tel. 070-7500-9508)

● 용인시 직원대상 직무워크샵 개최

본원은 지난 7월 9일~10일 양일간 대한간호협회연수원에서 용인시 무기계약직근로자 90명을 위한 조직활성화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10~11일에는 신규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마인드와 기본소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대응경영개발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유한대학 교수 교직원 합동 워크샵

본원은 7월1일~2일 양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유한대학 교수와 교직원 187명을 대상으로 개교이래 처음으로 가지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알래스카 연어 효과

정목일 수필가,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미 국 알래스카에선 6월부터 9월까지 연어잡이 철이다. 2009년 8월초에 알래스카에서 연어 떼들을 본 것은 이 지역 여행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연어의 종류는 킹, 레드, 실버, 핑크 등이 있다. 연어는 바다에서 3여 년을 살며 산란을 위해 멀게는 2만km의 대장정으로 모천(母川)으로 돌아온다. 있는 힘을 다 쏟아 역류하는 강을 거슬러 올라 생애에 단 한 번, 태어난 강에서 산란을 하고 숨을 거둔다. 연어의 모천 회귀는 산란을 위한 것이고, 죽을 곳을 찾아오는 행군이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강에서 죽는다. 강은 생명의 시원이며 생명체의 고향임을 보여준다. 연어의 유전자 속에는 모천이 흐르고 있다. 어머니의 말과 자장가가 흐르고 있다. 알래스카엔 5월부터 8월까지 밀물을 타고 연어가 돌아온다. 연어 낚시를 하기 좋은 강은 키나이강과 러시아강이 꼽힌다.

연어가 일단 산란을 위한 행군을 시작하면 중도에서 낙오나 포기할 수 없다. 역류하는 강을 거슬러 좁은 강으로 오르다가 바위 틈에 머리가 끼어 피투성이가 되고 바다곰, 바다사자에 물려 파닥거리는 몸통에서 붉은 알을 쏟아낸다. 연어의 회귀는 5~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강 상류에 도착해선 일생의 마지막 성사(聖事)인 산란을 함으로써 임무를 마친다. 산란으로 힘을 다한 연어는 사체(死體)로 떠오른다. 연어의 죽음은 생명의 변성과 미래를 위한 헌신이다. 산란으로 최후를 장식한 연어는 사체마저 아깝없이 내놓는다.

이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곰의 좋은 양식이 되고, 연어의 알은 철새들의 먹이가 된다. 곰들은 연어를 산이나 숲으로 가져가서 영양분이 많은 부분만 뜯어먹고 버린다. 연어의 사체는 땅을 기름지게 하며, 초목을 잘 자라게 만든다. 연어는 산과 숲의 생명체에게도 영양분을 제공하여 생태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연어가 강에서 나서 먼 바다에 나가 살다가 회귀하는 것은 연어만의 일이 아니다. 위대한 자연의 섭리이며 생명 법칙이다. 과연 무엇이 이처럼 정확하게 연어의 삶을 이끌어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신비하고도 거룩한 물의 흐름과 교류를 본다. 강가에서 연어

사냥에 열중해 있는 낚시꾼들을 본다. 연어의 최후는 비장하고 처참하지만, 생태계에 이로움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연어의 삶은 숭고하고 장엄하다.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연을 지키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 엄연한 순환, 순리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일임을 가르쳐 준다. 연어의 산란철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음을 알게 되는 때이다. 연어는 기

다려온 연어잡이꾼들, 곰들, 철새들에게 가까이 성찬(盛饌)을 제공한다.

연어가 생태계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는다. 산, 숲, 강, 바다로 흐르는 생명의 순환이 연어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진행된다. 생태계의 변명과 생명력을 제공하고 있다.

연어는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주된 식량양식이며 삶의 수단이다. 연어 산업은 알래스카에서 연간 3억2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하룻밤 새에 1200달러를 지불하고 연어잡이 스포츠를 즐긴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거대한 금광개발을 앞두고 있어 원주민 사회가 중요하고 있다. 남서부 지역에 북미 최대 규모의 금광 광산을 건설하려는 계획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금을 포함한 광석이 지니고 있는 유해한 중금속 때문에 연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연어는 산란과 죽음으로 삶을 완성시킨다. 사체마저도 내놓는 모습은 건강한 세상을 위한 희생이며, 보시가 아닐 수 없다. 사체로 떠도는 연어의 모습에서 거룩한 성자의 표정을 본다. 인간세계에도 연어의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목일**



정목일 이사장

1945년 생으로 75년 '월간문학'에 수필 당선, 76년 '현대문학'에 수필이 천로되어 등단했다. 경남신문 편집국장, 경남문화관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학 수필분과 회장, 창신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수필집으로 '별이 되어 풀꽃이 되어', '만나면서 떠나면서', '마음꽃 피우기', '달이 있는 바다' '모래밭에 쓴 수필' 등이 있다. 현대수필문학상, 한국문학상, 조경희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꼼꼼하게 따져 드시려니 번거로우시죠?
 이제, 당뇨병자 영양공급엔 **그린비아 디엠**

당뇨환자의 건강관리는 균형잡힌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어 힘들기만했던 건강식단 짜기-
 이제부터 당뇨병자의 영양공급은 그린비아 디엠과 상의하세요.
 양질의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의 함유량을 크게 높여 식이요법이 까다로운
 당뇨병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물론 영양의 균형까지 확실히 챙겨줍니다.
그린비아 디엠 당뇨병자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일반인 영양공급 그린비아 마일드케어 일반인 영양공급 그린비아 마일드케어(메론맛) 일반인 영양공급 그린비아 마일드케어(검은참깨) 고단백 영양균형식 그린비아 하이프로틴 당 조절 식이음 그린비아 디엠 튜브경관식 식이음 그린비아 티에프 비투석 신장 식이음 그린비아 알디 투석 신장 식이음 그린비아 알디플러스 식이섬유 함유 경관식 그린비아 화이바 경관식식용 그린비아 화이바 파우더



주식 정·식·품
 DR.CHUNG'S FOOD CO., LTD.

주문처

- 서울·경기 강남영업소(031)283-8581
- 서울·경기 남부영업소(031)281-5535
- 충청영업소(042)623-8601
- 경북영업소(053)559-3441
- 서울·경기 동부영업소(02)468-3233
- 서울·경기 북부영업소(031)861-3782
- 전북영업소(063)214-5731
- 경남영업소(055)231-8581
- 서울·경기 서부영업소(032)514-2315
- 강원영업소(033)764-8801
- 전남영업소(062)941-5001
- 부산영업소(051)204-8581

문의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건설의 패턴을 바꾼다

이젠, 건설도
다이렉트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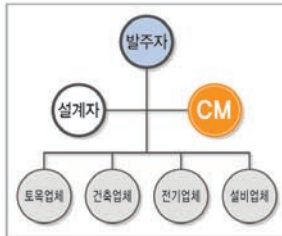


부동산 특집
종합-전문 영업제한 2011년 폐지
시공책임형 CM 도입
건설법·시행령 개정안
2011년 폐지된다.
종합·전문간 영업제한 규제가 오는 2011년 폐지된다.
종합·전문간 영업제한 규제가 오는 2011년 폐지된다.
종합·전문간 영업제한 규제가 오는 2011년 폐지된다.

선진국형 건설방식 CM의 가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돋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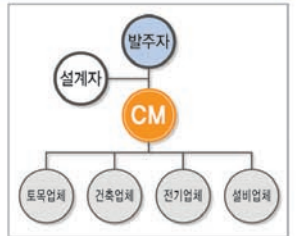
건설 다이렉트 모델 - 사업관리형 CM

- 기존 3단계의 건설유통구조를 건축주와 전문 건설업체가 직접계약직거래 방식하는 2단계 유통구조로 축소하여 사업비를 최대 35% (해의 S프로젝트 실적)까지 절감하여 드립니다.
- Fast Track 기법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드립니다.



건설 다이렉트 모델 - 책임형 CM

- CM사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단계는 물론 시공까지 책임지고 정해진 사업비와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드립니다.
- 공사비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비를 절감하여 건축주에게 돌려 드립니다.
- 모든 비용을 건축주에게 공개하며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드립니다.



한미파슨스는 대형 건설프로젝트는 물론 주택, 소형 오피스, 근린상가, 클리닉빌딩 등 중소형 건설프로젝트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